

대구MBC “1987년 실종 KAL 858기 추정 동체 발견”

기사입력 2020-01-23 20:59



대구MBC는 1987년 미얀마 상공에서 실종된 '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MBC는 KAL 858기 실종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미얀마 안다만 해저에 특별취재팀을 보내 취재한 내용을 이날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보도된 '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 모습. [사진 대구MBC 뉴스 캡처, 연합뉴스]

1987년 미얀마 상공에서 실종된 '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했다고 대구MBC가 23일 밝혔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특별취재팀이 현지 취재 중 촬영한 KAL 858기 추정 동체를 공개했다.

KAL 858기 사건은 1987년 11월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 정도 앞두고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실종된 사건이다. 비행기는 미얀마 상공에서 공중 폭파됐다.

김현희 등 북한 공작원 소행이라는 결론 외에 구체적인 사건의 진상 등이 규명되지 않아 의혹이 그치지 않고 있다.

대구MBC는 “김현희와 김승일이 저지른 폭파 테러라는 결론에도 의혹은 그치지 않았고, 33년이 지나도록 단 한 구의 시신도 발견하지 못해 미스터리로 남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성큼 다가선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날 보도된 '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 모습. [사진 대구MBC 뉴스 캡처]

보도에 따르면 추정 동체는 비행기 날개 모양 물체로 미얀마 안다만 50m 해저에서 발견됐다. 엔진 형태의 물체 등 총 4개 물체가 수중카메라에 잡혔다.

취재진이 특수 수중카메라를 투입해 촬영한 영상에는 둥글고 길게 뻗은 물체가 온전한 형태로 나타났다. 민항기 조종사 출신의 전문가는 인터뷰를 통해 “항공기의 엔진과 날개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MBC는 항공사고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결과 지난 1940년 이후 안다만으로 추락한 항공기는 모두 3대로 엔진의 위치, 모양, 꼬리날개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이날 공개한 영상 속 엔진이 대한항공 KAL 858기의 기종인 보잉 707과 거의 일치한다고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 ▶ 노후경유차 과태료 35만원 피하려면? 먼저알지!
-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5&aid=0002970128>